

현지출장자료
[2013.11.29~12.6]

유럽의 도시재생사례에 대한 유관 기관 방문 및 현장 조사 - 영국, 이탈리아 -

2013. 12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정소양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송지은

해 외 출 장 보 고

- 세부출장복명서 -

- 출 장 자: 정소양 책임연구원, 송지은 연구원
- 출장기간: 2013년 11월 29일~12월 6일 (7박9일)
- 출장국가: 영국, 이탈리아

I . 해 외 출 장 계 획

1. 출 장 자

- 정 소 양 책임연구원, 송 지 은 연구원

2. 출장목적 및 주요조사내용

(1) 출장목적

- 유럽(영국, 이탈리아)의 도시재생사례(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에 대한 유관 기관 방문 및 현장 조사

(2) 조사내용

- 이탈리아 커뮤니티재생과 역사성 회복 활용한 도시재생사례 면담 및 답사
 - (볼로냐, 협동조합과 상생의 도시)1970년대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자, 볼로냐는 소규모 예술공방형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볼로냐 시에만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피렌체 구도심 지역자산 활용)기존도심의 역사 중심지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사례 답사
- 영국의 도시재생과 연관된 문화·경제·사회 정책의 전개와 방향
 - (기관 방문 및 자문) 기존 도시의 역사성과 시설의 재활용을 활용한 과정과 중앙정부·지자체·사업자 등 주체별 역할 및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계획요소 공유- CPF 적립 규모 및 의무 예치 현황 조사

- (런던) 런던의 Tate Modern, Broadgate, Millennium Project, Dockland 등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답사를 통해 공공-민간협력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사점 공유

3. 출장국가 및 도시

☐ 출장기간: 11월 29일(금)~12월 06일(토)

☐ 출장국가 : 영국, 이탈리아

☐ 유럽(영국, 이탈리아)의 도시재생사례(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에 대한 유관 기관 방문 및 현장 조사

Ⅱ. 해외출장 세부일정

일 시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인물
11.29(금)	인천	런던	(이동)	○ 인천 출발(13:05) → 런던 도착(16:30)	-
11.30(토)	런던				
12.1(일)	런던			○ 런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 답사 - 밀레니엄 프로젝트, 테이트모던, 브러드게이트 중심금융지구 등 사례 답사	
12.2(월)	런던		런던정경 대학 (LSE)	○ 런던 전문가 면담 및 사례지 답사 - 김정후 박사와의 전문가 면담 - Dockland 지구 도시재생사례 답사 : 공공(LDDC-런던도클랜드 개발공사)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례지	김정후 소장(영국 도시건축정 책연구소) 외 2인
12.3(화)	런던	피렌체	(이동)	○ 런던 출발(09:25) → 피렌체 도착(12:40)	-
12.4(수)	피렌체			○ 피렌체 - 피렌체 역사지구의 역사중심지의 보존과 활용 사례 답사	
12.5(목)	피렌체	볼로냐	협동조합 방문	○ 협동조합과 창조도시, 볼로냐 답사 - 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답사 ○ 문화 창조도시 전략 추진 사례 - 볼로냐 2000 프로젝트 현장 답사	
	볼로냐	피렌체			
12.6(금)	피렌체	로마	(이동)	○ 로마 - 로마의 로마의 역사문화활동부(MHCA)와 로마시에 의해 촉진된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 답사 ○ 로마 출발(22:25)	
12.7(토)	인천		-	○ 인천 17:25 도착	

Ⅲ. 출장관련 조사 및 연구내용

1. 런던 내 주요 경제기반형 재생사례지 조사

1) 영국 도시재생의 특징

☐ 영국의 재생사업 등장 배경

- 영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의 복구와 탈산업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실업률이 높은 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침
- 영국의 경우 탈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산업기반이 약해지면서 도시가 쇠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산층들이 교외로 빠져나가면서 도심은 버려진 집들과 쇠퇴한 상점들로 넘치는 쇠퇴도시의 전형적인 실태를 보임
- 영국은 지역 간 인구성장 패턴이 매우 대조적인 국가로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난 중북부 지역 및 스코틀랜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보임
- 영국의 쇠퇴 도시들의 분포를 보면 주로 산업화 시대에 성장하였던 맨체스터나 글래스고와 같은 도시들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 영국은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일찍부터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
- 또한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접근방법도 시기와 당면하고 있는 도시쇠퇴 문제 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

되어옴

- 1930년대 도시재생 정책은 물리적으로 너무 낡은 주택가 슬럼지구를 철거하는 접근방법을 도입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도시재생 정책은 물리적 차원에서 도시를 재건설하는 접근방법을 도입
-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은 197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주로 물리적 차원의 도시 재정비에 초점을 두었으나 세계 경제가 침체된 시기인 1980년대 도시재생 정책은 경제적 차원의 도시 재개발에 역점
-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을 접근
 - 영국은 현재 문화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있으, 특히 도시 르네상스 접근을 시도
 - 이러한 도시재생의 다양한 접근방법은 시대적 흐름과 도시 쇠퇴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도시재생을 하려는 정책기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도시재생의 대상

- 영국의 도시재생 대상의 공간 단위는 노후화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블록에서부터 지구, 도심, 특정 지역,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함
- 특히 1990년대 말 광역 단위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 설립되면서 도시재생 전략을 광역권을 대상으로 접근
- (대상지역)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고용 및 소득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중된 지역
- Policy for Inner-city('77), Toward to the Urban Renaissance('99), London Plan('04)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

- SRB/SP 등 포괄보조금 배분시 IMD 지수 20%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Thames gateway 지역에 집중)

□ 도시재생사업 수행방식

-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
- 도시재생 대상지의 침체는 초기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보기 어려움
- 그만큼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이 장기적이고 대규모 지역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제적 측면의 투자에서 한계가 있음
- 이런 특징으로 초기에 영국의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역량을 보완
-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한 신뢰성과 장기적 이익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중앙의 투자를 통한 민간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초기의 중앙의 관여와 집중 투자는 일반적임

2) 런던 도클랜드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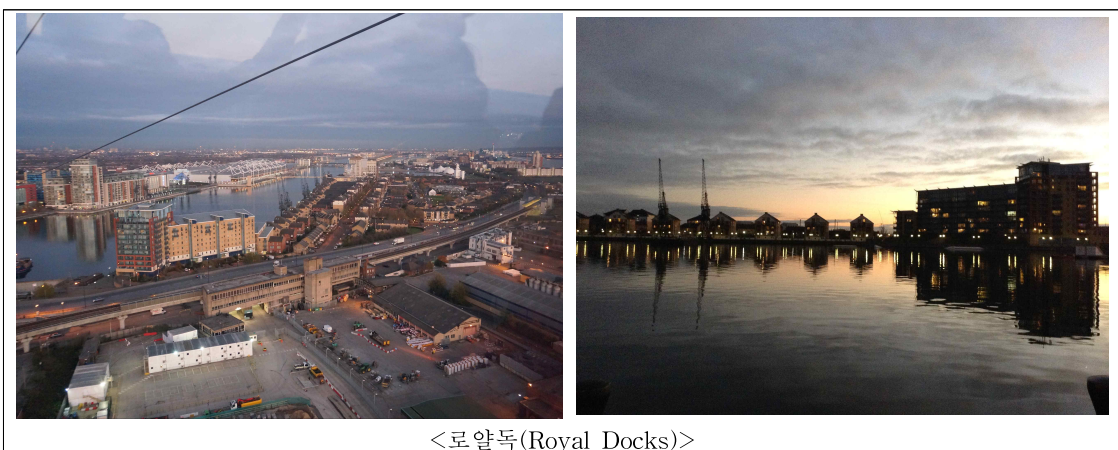
- 도클랜드 도시재생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규모 산업유희지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이 적용된 80~90년대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
- 총 39억 파운드의 공공비용이 투자되었으며 도클랜드개발공사에 의해 1979~1998년까지 약 17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었다. 런던 도클랜드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① 아일오브도그(Isle of Dogs) ② 와핑과 라임하우스(Wapping-Limehouse) ③ 로얄

독과 벡톤(Royal Docks-Beckton) ④ 서리독과 버몬지 리버사이드(Surrey Docks-Bermondsey Riverside)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

- 아일오브도그는 엔터프라이즈존 개념을 적용한 런던 제2의 금융지구 카나리와프(canary wharf)를 조성하였고 와핑과 라임하우스지역은 기존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과 기존 창고의 재활용, 호텔, 세계 무역센터 등을 추진



- 로얄독과 벡톤지역은 교통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여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여 어반빌리지 조성, 공항(London City Airport)과 철도를 연계한 로얄비즈니스 파크 등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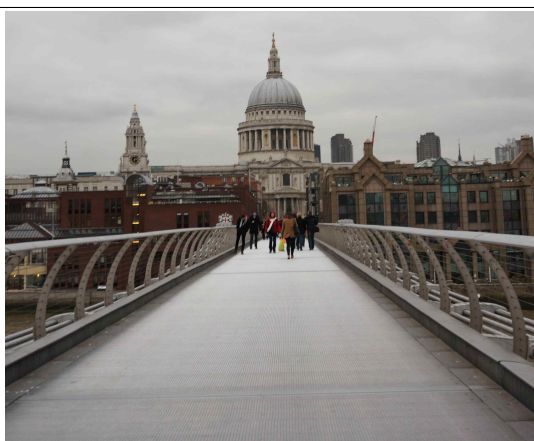


- 서리독과 버몬지 리버사이드는 상업시설 및 복합주거시설, 레저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임

- 도클랜드 재생사업은 공공투자 금액의 50%를 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환경·사회분야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도출
-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실행계획 수립과 도클랜드개발공사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사업결과를 견인하였고 각 이해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물리적 개선 뿐 아니라 사회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재생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음

3) 밀레니엄 프로젝트

- 영국은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3천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 특히 런던에서는 낙후된 템즈강 남쪽 지역의 활성화에 사업이 집중
- 템즈강 북쪽은 정치·문화·경제·관광 등의 핵심시설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템즈강 남쪽의 서덕(southwark), 램버스(lambeth) 지역은 이민자,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방치된 산업지역으로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템즈강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밀레니엄 브릿지>



<템즈강 남쪽에 위치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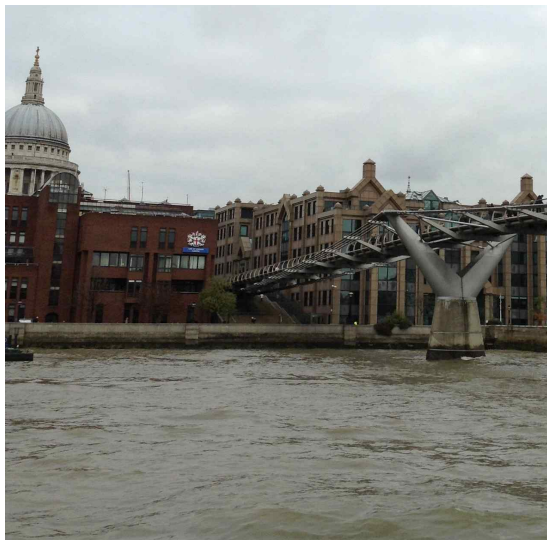
- 런던시는 낙후지역에 핵심 도시재생 방안으로 밀레니엄 돔 (Millennium Dome), 런던아이(London Eye), 밀레니엄 브릿지 (Millennium Bridge) 그리고 템즈 강변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Tate Gallery of Modern Art) 등을 조성하여 런던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를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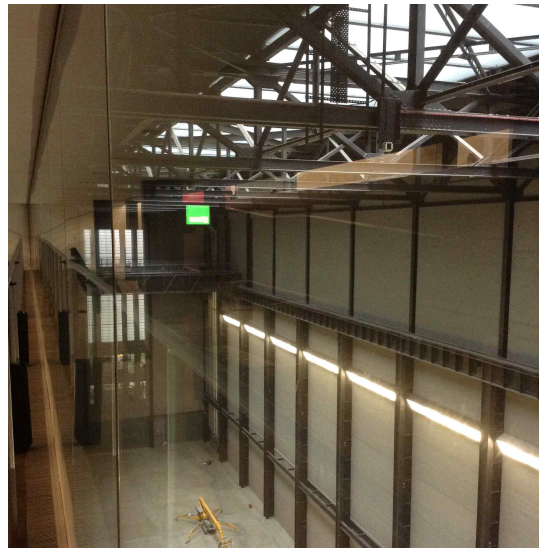
<밀레니엄 돔>



<런던아이>



<밀레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 내부 터빈 공간>

- 템즈강 남쪽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1981년 폐업한 뒤 20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 시킴
- 런던시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치됐던 기존 건

물을 부수고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모습을 유지·재사용하여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재탄생시켜 주변지역까지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밀레니엄 브릿지”는 기존의 행정·금융·문화 중심지인 템즈강 북쪽과 사우스뱅크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형성함에 따라 테이트 모던 갤러리와 함께 런던의 새로운 문화 중심축으로 떠오름
-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템즈강 북쪽에 집중된 거주자와 관광객을 남쪽으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 발전, 도시브랜드 형성,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둠



<낙후된 템즈강 남쪽 지역의 활성화 사업 일환>

4) 킹스크로스(King's Cross)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 현황

- 런던의 운송의 중심지역인 King's Cross는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추진
 - (사업부지) 74만m²(800만 평방피트)
 - 친환경 개발, 역사·문화도시재생 방식
- 사업추진 주체(토지소유) : 정부, DHA ※2007년 정부가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 추진
- 운영주체 : ARGENT(개발회사), DHL(토지소유회사), LCR(토지소유회사)
-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2개의 역(King's Cross St., ST Pancras Interational) 6개의 철도 line(Victoria, Piccadilly, Hammersmith & City, Circle, Bakerloo, Northern)이 교차



<ST Pancras Interational>



<King's Cross St>

☐ 도시재생의 배경

- (지리적 특징)런던의 중심부에 위치(15분 내에 런던 대부분 지역에 도달), 접근성 우수

- 역사적으로 기차역을 지역성장 동력으로 뒷받침
 - 기차역 이전에는 운하가 있었고 19C 중반 2개의 주요 역사 개발로 인해 지역의 토지값 상승
 - 작은마을 이었던 이곳은 30분 안에 런던 어디에서든지 도달 가능한 지역으로 성장하며 물자운송의 종결점으로 성장
 - 이 지역의 주변은 밀가루 창고, 감자창고 등 운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낙후된 지역



<과거 창고 등 운송의 중심지였으나 쇠퇴이후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

- 현재 이 지역은 기차역 Line 자체가 계속 변화 중임, 2013년부터 고속철도와 연결예정
- 공공영역에서의 개발로 역 주변부지 활용 가능
 - 보통 영국의 개발은 향후 미래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기 때문에 역주변 개발이 쉽지 않으나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은 공공영역차원에서 개발이 되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된 사례
 - 사업부지 27ha는 정부(2/3), DHA(1/3)가 토지를 소유
- 기능적 의의
 - 철도 노선을 정하는 원칙은 경제성이 아닌 지역개발 계획원칙을 우선시 함
 - 어느 역을 기점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노선의 결정은 전략적으로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기존 개발지역을 피하면서 노선 결정

○ 용도적 특징

- 과거 이 지역은 가스저장고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개발 중(가스저장고 탑을 철거하고 다시 교체)
- 대지안에서 20개의 유산이 발견되었고 17개는 보전이 되었는데 3개는 소실됨

□ King's Cross 재생사업의 특징

- 런던에서 가장 빠르게 급변하는 런던 커뮤니티 중 하나로 사업 부지면적은 74만m² (캐너리 워프 부지 : 50만m²)
- 빠른 재생사업 속도의 이유는 개발의 규모가 작고 정부의 지원으로 심의 과정을 간소화 하여 수월하게 통과하고 공공이 개발지원
 - 개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역 정부, 시, 중앙이 많은 개입을 하게 되고 이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함
- ⇒ 소규모 개발의 효율성
- 지역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음
- ⇒ 역사문화시설을 보존하여 새로운 지구·건축과 조화



- 도시기본계획의 방침 준수 : 고밀복합개발 추진
 - (사업목표)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교외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 허용 용적률은 500%(기본 지침 존재)였으나 실제로 사업 추진시 500%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햄스틱 공원 등 주변부 조망권 제한에 의해 17층 이상의 건축물을 허용하지 못함
- 15-20년간의 장기간에 건칠 재생사업으로 시장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급, 건설하기 위해 유연한 지침으로 대응
- (용도)업무지구 50%, 주거 2000세대, 쇼핑, 대학(University of the Art London)
- 킹스크로스는 80년대 캐너리 워프 사업과의 비교하여 캐너리 워프가 업무 지구 중심으로 개발된데 비해 킹스크로스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로 개발
-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성, 시설의 집약(복합개발)을 전략 목표로 함

□ 사업 전략

- 개발전략 : 학교 유치를 통해 젊은 유동인구를 방생시켜 지역의 재생 효과를 기대
 -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대학(University of the Art London)을 개발자, 소유주들이 직접 학교를 유치함
 - 또한 디자인 대학의 성공적인 유치로 인해 다른 민간 유치 가능



- 사업 투자금 및 파급효과 추정
 - 개발 가치 : 30억 파운드 추정
 - 투자금 : 지난 10년간 25억 파운드(약 5조)
- 사업방식은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
- 사업 초기 시작은 정부가 개발효율을 높이고, 윤리적인 개발업자를 선정
- 사업기간 원칙 : 정부는 사업 기간을 장기적으로 구상
- 재정의 운영 방법은 토지(연금기금), 도시기반구조·시설(은행금융), 개별건축(개별 건축별로 민자유치)의 각각 재정에 따라 운영
- 사업 관리는 홈페이지(www.constructionatkingscross.com)를 통해

사업을 공개,사업현장 실시간 중계하고 분기(년4회)별 사업 소식지 발간을 통해 사업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

□ 시사점

- 런던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빠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킹스크로스는 영국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살려 장기 임대형식으로 사업이 진행하고 건물은 개인회사가 개별소유의 형태를 지님

- ① 정부의 지원, 공공의 지원으로 빠른 재생사업 속도 추진 가능
- ② 대규모가 아닌 사업규모로 사업추진원칙 준수 가능
- ③ 교외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사업 추진
- ④ 시장수요에 따른 적정규모 공급, 건설을 위해 15-20년간의 '장기간의 재생사업 추진'과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윤리적인 개발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⑤ 지역재생·활성화를 목표로 유명대학을 유치하고 그 원동력으로 다른 민간 유치개발 성공
- ⑥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과정을 공개(홈페이지 및 실시간 현장 동영상, 소식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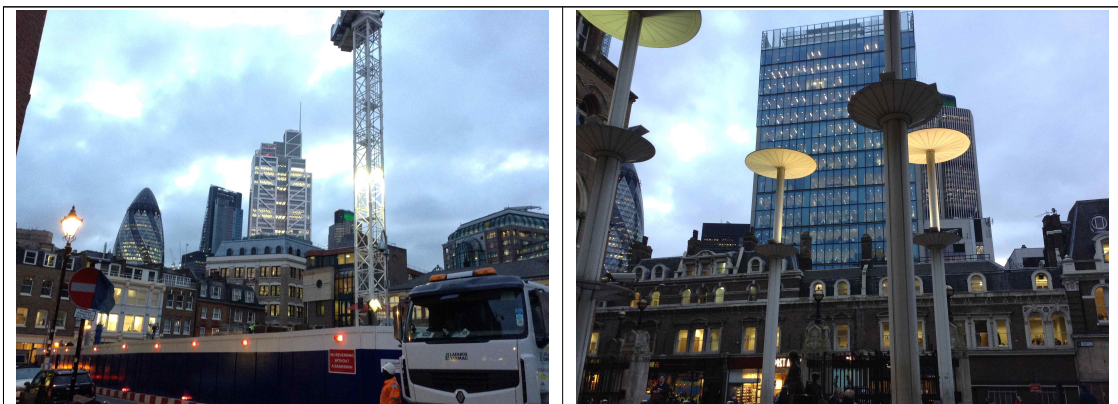
5) 브로드게이트중심 금융지구

☐ 진행과정

- 대처정부 집권 후인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 인접한 리버풀 역사의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 2004년 런던플랜에서 기회지역으로 지정하여 이후에도 재생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양질의 건축디자인을 토대로 한 공공공간 개발 및 공공아트 적용

☐ 시사점

- 150개 회사에서 약 3만 명의 고용 창출 및 매년 1억 5000파운드 임대소득 창출(2008년 3월 기준)
-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대규모 사무공간 개발사업
- 1980년대 런던지역의 도심재개발 및 건축환경 조성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 도시디자인적 접근, 양질의 공공공간과 보행로 조성
- 새로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역세권 개발



<브로드게이트 전경>

6) 바비칸 센터

☐ 배경 및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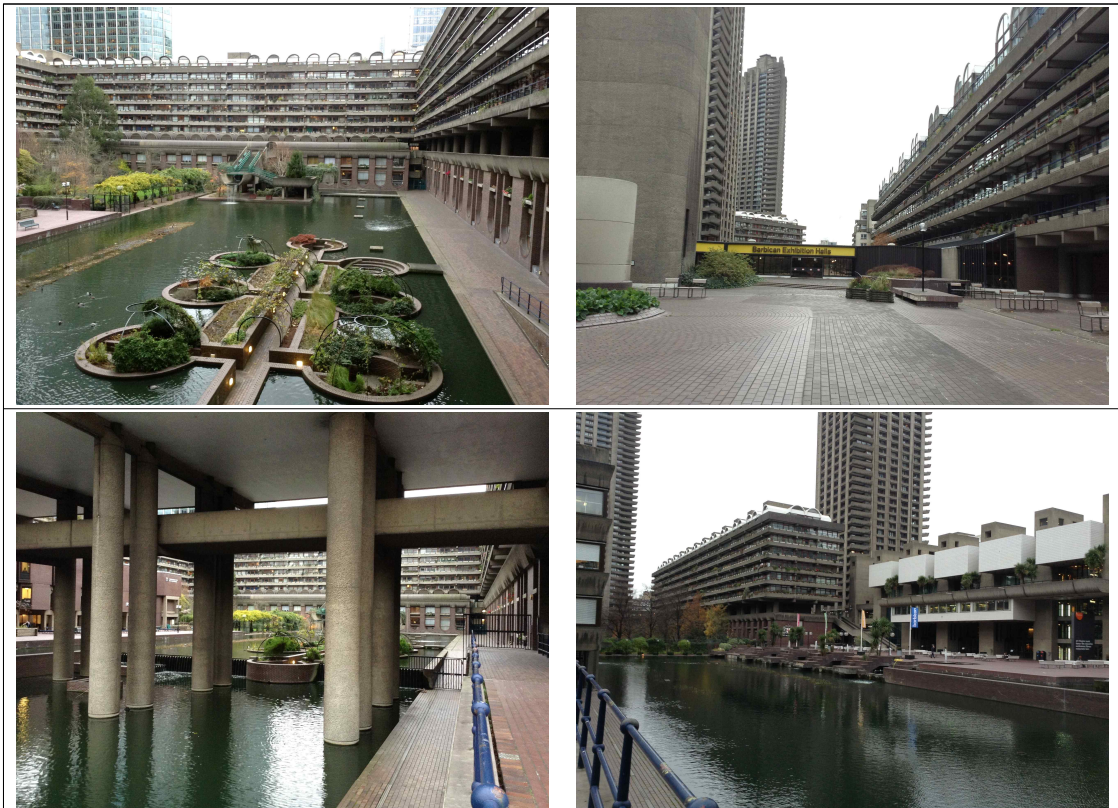
- 1940년 12월, 전쟁의 폭격으로 14헥타르에 해당되는 지역이 파괴되면서, 런던의 바비칸 지역에 새로운 거주 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추진
-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습을 가장 먼저 받은곳으로 런던시는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주거공간과 문화 공간이 융합된 아트빌리지를 계획
- 런던시의회는 건축가 챔벌린, 포웰, 본에게 건축의 설계를 맡겼다. 수도 도심가에 위치한 이 주택 단지는 그 명칭인 요새화된 전초기지 또는 통로의 의미를 지닌 '바비칸'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연관되도록 디자인됨
 - 이를 연상케 하는 해지, 포탑, 가늘게 베인 수직 형상과 같은 것들이 포함
- 1950년대 건립 계획을 세우고 무려 27년의 공사와 보수 끝에 극장, 콘서트홀, 도서관, 전시장, 영화관, 그리고 주거공간을 조성

☐ 바비칸 센터 계획

- 시의회는 건축가에게 분명히 상충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열린 공간에 비중을 두는 것과 가능한한 많은 아파트를 확장
- 이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가들은 배가 운하를 따라 운행되는 동안에도 보행자들이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사람과 여러 교통

수단의 통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

- 그들은 바비칸의 많은 빌딩을 플랫폼과 기단(基壇) 중심으로 설계해, 고밀집 구조가 아닌 흰히 트여 넓은 구조로 설계
- 바비칸 단지 내 13개의 건물은, 켄싱턴과 브럼스버리 거주 구역을 신중히 모방하여, 최적의 공간에 세워짐
- 그 결과로 주택 단지는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넓고 오픈된 공간 설계를 주된 미학으로 하여, 원주로 둘러싸여 답답하지 않으며 동시에 베네치아의 공간 배치 방법에 따른 돋보이는 공간으로 탄생



<바비칸 센터>

7) 런던대학 UCL 지리학과, 도시건축정책연구소(JHK Urban Research Lab) 방문 및 전문가 면담

가. 개요

- 일시 : 2013년 12월 2일(월요일)
- 면담자 : 김 정 후 소장(도시건축정책연구소)



나. 주요 회의내용(인터뷰 요약)

- 사례연구의 경우, 정책연구의 비중이 훨씬 커야하며 정책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었고, 실제 사례는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선진사례가 되었음. 초기 단계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 있음. 산업유산의 5%가 남아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음
- 영국의 사례와 더불어 이를 유럽 각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 의미 있음

- 버밍엄의 경우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역의 중심이었던 지역의 특성을 살려, 불링지구라는 중심상업지구의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써, 타 도시재생사례와는 접근방법이 달랐으며, 70% 정도는 런던의 전문가들, 실패와 성공노하우가 있는, 참여로 이루어짐
- **테이트모던 활용**은 정부의 주도가 절대 아님.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소장작품을 다 전시하지 못하던 찰나,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던 직원의 아이디어로 기존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게 된, 순수 민간 주도의 사례임. 한국 등지에 잘못 소개되고 있음
- **밀레니엄 브릿지(Bridge)**는 기존에 30여차례 브릿지를 놓으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실현 되지 않다가, 보행자 브릿지 의견이 제안되었고 이것이 밀레니엄이라는 시대배경과 테이트모던 미술관 등과 연계되어 실현되었음. 노먼 포스터는 최대한 브릿지 자체는 부각되지 않는 디자인을 선보여 당선됨
-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의 경우, UAL의 경우 학교를 이전한 것으로, 민간학교가 정부가 제공하는 부지에 이전한 사례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음
- 한국에서의 도시재생의 개념은 어떠한가?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의 반대가 아니다. 도시개발의 다양한 모습의 하나로써 이해해야함. 도시재생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지향점을 정해 이를 평가·모니터링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야함

2. 이탈리아 주요 근린재생 사례지 답사

1) 창조도시 볼로냐

□ 일반 개요

- 거주민 38만 명과 수도권 인구 백만 명에 이르는 도시 볼로냐는, 이탈리아 중심부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 1088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볼로냐 대학은 현재 8만 7천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볼로냐는 이러한 오랜 문화유산과 더불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물자와 인력이 드나드는 교차로로써 북이탈리아의 주요 경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힘



<볼로냐 대학>



<볼로냐의 중심 '피아자 마조레'>

- 볼로냐市에 시민 단체가 총 1,400개, 이 중 400개는 사회 및 보건 단체로 상당히 단체가 존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 시민 단체들은 시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정책 의 주요 원천

- 볼로냐 경제의 대부분은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 및 산업 또한 ‘패키징 밸리’를 비롯한 기타 여러 산업 단지에서 대표적인 분야
- 볼로냐시의 사회적 경제는 수도권 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많은 민간 단체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
- 자원봉사단체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G-및 재단들이 존재하며 볼로냐시 사회적 경제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와 조정, 특정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위 단체들 중 약 500여 개가 볼로냐 시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도시’, 볼로냐

- (배경)1990년 당시 최악의 재정적자를 지닌 이탈리아가 10년 후 재정재건을 이룬 그 배경에는 대형 공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 정책을 주정부와 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분권화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급함으로써 시민 참가에 의한 재정의 효율화 달성
- 볼로냐는 산업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과 연계·협동 노력에 의해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하고 재정위기를 극복
- 볼로냐시는 산업, 문화, 복지 영역에서 주민의 창조력을 이끌어내는 사회 시스템을 전개

사회 시스템	주요 내용
문화정책과 문화협동조합	볼로냐2000 주요 프로젝트로, 볼로냐 도시에 문화단체 및 시민들의 다양한 기획안을 포괄하는 300개의 콘서트, 2300개의 전람회, 260개의 컨벤션, 125개의 실험실 등 함께 2000시간에 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협동에 의한 문화창조로 문화 정책이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볼로냐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장애인의 발달 보장 등 기본적 인권확대를 위한 풀뿌리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조성

- 산업의 쇠퇴와 인구 변화 등으로 도시 쇠퇴현상을 겪은 지역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온 사례로 창조적 문화 산업과 시민들의 창조적 역량이 탈공업화 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기반



- 유네스코에서는 미래 세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 산업의 비중을 크게 인정하여 문화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문화적 생산물을 도모하고자 2004년 창조도시 네트워크 제도를 통해 문화, 영화, 음악, 공예와 미술, 디자인, 먹거리 문화 7개 분야를 대상으로 도시를 유형별로 분류

번호	도시명	선정된 분야
1	영국의 에딘버러	문학도시
2	이탈리아의 볼로냐	음악도시
3	에스파냐의 세빌라	음악도시
4	이집트의 애스원	공예/미술도시
5	미국의 산타페	공예/미술도시
6	독일의 베를린	디자인도시
7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디자인도시
8	캐나다의 몬트리올	디자인도시
9	콜롬비아의 뽀빠이안	먹거리문화도시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 창조도시>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의 오래된 전통인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던 1970년대 후반 이후 협동조합의 전통을 재발견하여 사회 경제적 주체로 활용해왔고, 유럽 사회적 경제의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해옴
- 특히 이탈리아는 중세 이래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보다는 단단한 시민사회와 가족주의로 구성된 작지만 강력한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대의 전통을 이어옴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체계화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승인된 법률 381호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의 제정
 - 특히 법률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의 이익 증진이 목표가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배제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
- 국가차원에서 법 제도적 정비로 인해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사회적 협동 조합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었고 이제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2) 볼로냐 협동조합

- 이탈리아의 20개 주중 하나인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도(州都)는 볼로냐이며 이곳은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
- 에밀리아 로마냐 국내총생산의 30%를 볼로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 50개 가운데 15개 협동조합
- 현재 볼로냐는 유럽연합에서 상위소득기준으로 5개 지역안에 포함된다. 볼로냐의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함
- 이러한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경제성장은 협동조합의 고용인원이 1971년 53,780명에서 1981년 94,937명으로 2001년에 144,480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이와 함께 기업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일치하여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협동조합	일반 개요
레가콥 볼로냐 (Legacoop Bologna)	• 레가콥(Legacoop)는 국제협동조합연맹과 2006년 11월 맨체스터(Manchester)에 설립된 가장 큰 유럽협동조합 대표기관인 협동조합유럽(Cooperatives Europe)의 회원 • 레가콥의 연합구조는 전국, 지역, 영토별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자주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 • 이 연합구조는 자주적 부문협회들로도 나누어지는 데, 각 부문별 활동에 따라 각자 협동조합을 조직 • 레가콥 볼로냐는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의 주요 지역단위 중 하나로, 9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생산가치를 갖고 있는 관련 업체 200개와 조합원 500,000명, 직원 16,500명으로 구성



<볼로냐 협동조합 내부사진>

3) 제빵공장 재생사례 : 현대미술관(Museum Art of Modern at Blologna)

□ 도시재생 배경

- 제빵공장은 1915년 세계 1차대전의 밀가루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
- 전형적인 고전 양식의 건물외관은 그대로 보존되고 내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
- 건축물의 외관을 살리면서 현대미술관의 기능으로 기획된 모습으로 공간의 재생계획을 보여줌
 - 건물은 주변지역과 어우러져 형성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입구는 한쪽이 열린 포티코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현관으로 들어가면 1층 공간은 제빵공장에서부터 존재하였던 높은 천정의 구조를 보강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내력벽을 그대로 조형적 요소를 살림
 - 기존의 불필요한 벽체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남겼으며 예술품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배경색을 단순하게 마감
- 기존 빵공장의 구조물과 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실내를 현대적으로 마감
- 거대한 공간을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기둥과 높은 천정 구조물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작업, 기존의 벽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반 구조 및 설치물들을 활용
- 옛 건축과 현대적 실내건축이 변화하는 삶과 문화를 지원
-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전시 공간이 되는 동시에 이 공간에 전시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가짐



□ 시사점

- 전면 철거 후 새롭게 신축하는 도시계획이 아닌 기존의 도시 모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담는 사례로써 이태리 볼로냐의 공장이었던 쇠퇴지역을 사례 분석
- 도시 전체가 문화와 예술의 정신을 담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산업과 시대의 변화로 공장지역이 쇠퇴하여 도시의 위험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현대미술관으로 개조
-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고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아름답고 기능적인 현대 공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